

사진기사의  
판자

“어머니,  
저도 이렇게 키우셨겠죠”



조음과 사진 속 동그라미가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메속거리기 입덧만 끝났으면 했는데, 언제 클까, 무사히 커 갈까 걱정했는데 훌쩍 자라는 것을 보면 신기합니다. 친진한 아이의 웃음, 정말 예쁘죠. 모든 엄마가 마찬가지일겁니다.  
최근 광주시 북구청 회의실에서 북구 보건소 주최로 열린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를 들렀다가 아이와 함께 참가한 엄마들을 만났습니다.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열린 행사로, 모유를 수유하고 있는 생후 6개월까지의 아기들이 엄마와 함께 참가했습니다. 가슴에 품 나듯 아빠들도 보이더군요.  
아이가 항상 예쁘고 애 때문에 즐겁지만 할까요. 직접 겪어보셨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밤중 울어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깨어 보게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는지 정

확하기도 합니다. 젖 먹이라, 기저귀 갈라, 도통 잠을 못 잡니다.  
갑기 걸려 열이라도 나면 밤새 물로 씻기고 돌봐야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지요. 당시 아버라는 '인간'은 남일인 듯 했죠. 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나 믿기도 했을 겁니다.  
애들이 조금 더 크면 어떻습니까. 밥 먹이려고 이방 저방 쫓아다녀야 하고 조그만 아이가 맘에 안 든다고 버티던 열마나 힘들었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쌓여가게 자식걱정 아닙니까.  
“우리 엄마도 이렇게 힘들게 낳아서 키웠구나”하고 그제서야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이에게서 부모에게까지 흘렀습니다만 추억이 널 모래입니다. 쫓던 날 샅샅이 돌리지만 이번엔 진정에 가면 힘들게 키워주신 엄마에게 용돈한번 두둑히 드려보세요. 마다하신다고 금방 거역들이지 말고.  
/위령기자 jrwi@kwangju.co.kr

오늘의 유머

■놀부의 시계

놀부가 죽어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정하는 곳에 왔다.  
놀부가 이래저래 둘러보니 여기저기 시계가 보였다.  
놀부 : 여긴 왜 이렇게 시계가 많죠?  
안내원 : 저 시계들은 자신이 나쁜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빨라지는 시계예요.  
그 말을 듣고 놀부는 자신의 시계를 찾아 보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놀부는 의아한 마음으로 안내원에게 물었다.  
놀부 : 전 나쁜 일을 하나도 안해서 시계가 없나보죠?  
안내원 : 놀부님겐 너무 빨리 돌아서 옥황상제님 선풍기로 쓰고 있는데요.

■왜 물어봐?

한 남자가 이발소에 들어와 물었다  
“머리 깎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이발사는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을 둘러 보며 말했다.  
“두시간 걸리겠는데요”  
그 소리를 들은 남자는 그냥 갔다.  
며칠 뒤, 그 사람이 다시 이발소에 고개를 들이대며 물었다.  
“머리 깎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해요?”  
“2시간이요”  
역시 남자가 그냥 갔다.  
이발사는 궁금해져서 옆에 있던 친구에게 말했다.  
“이봐, 저친구 따라가서 어느 이발소로 가는지 좀 봐줘”  
잠시후 친구가 돌아와서 이발사에게 말했다.  
“그 친구, 자네 집으로 가는데?”

■천국에서는

어느 부자가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천국으로 가져가겠다고 졸랐다.  
하나님께서서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셔서

만, 끈질기게 졸라대는 통에 마지못해 허락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천국에 올 때 네 재산을 가져와도 되지만, 가방 하나에만 담아와야 한다”  
부자는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 금으로 바꾼 뒤 흐뭇해했다.  
“이렇게 할 줄이야 하나님께서 미처 모르셨겠지.”  
천국 문에 다다르자 베드로가, 소지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부자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베드로는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자고 했다.  
가방을 열어 본 베드로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하는 말.  
“아니~ 도로포장 재료는 무엇하러 이렇게 잔뜩 가져오셨습니까?”

■세상 참 좁네

두 명의 남자가 골프를 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두 명의 여자가 골프를 치고 있었다.  
그녀들은 공 한 번 치는데 5분, 잘못쳐서 숲으로 간 볼 때는 10분.  
겨우 그리에 올라가서도 몇 십분씩 걸리는 것이다.  
“내가 가서 먼저 지나가도 되겠냐고 말하고 올게”  
첫번째 남자가 이렇게 말하고 그린 쪽으로 뛰어갔다.  
그런데 그리를 20m쯤 남기더니 급히 돌아서 허겁지겁 뛰어왔다.  
“아, 못하겠어. 한 여자는 내 마누라고 한 여자는 내 애인이야. 글썽”  
두 번째 남자가 “그래? 그럼 내가 말하고 올게” 하며 뛰어갔다.  
그런데 그린까지 거의 갔던 그가 갑자기 뒤로 돌아 헬레벌떡 뛰어왔다.  
“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세상 참 좁네!”  
“한여자는 내 부인이고 한여자는 내 애인이야!”

뉴스퀴즈

82. 전국 16개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임원 등 3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체육행사가 오는 10월 8일부터 광주에서 열립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1993년 제 74회 대회 개최 후 14년만에 열리는 것으로, 불거리·먹거리·즐거거리가 가득한 종합문화축제로 치러집니다. 무슨 대회일까요?

- ① 전국체육대회
- ② 소년체육대회
- ③ 도민체육대회
- ④ 장애인체육대회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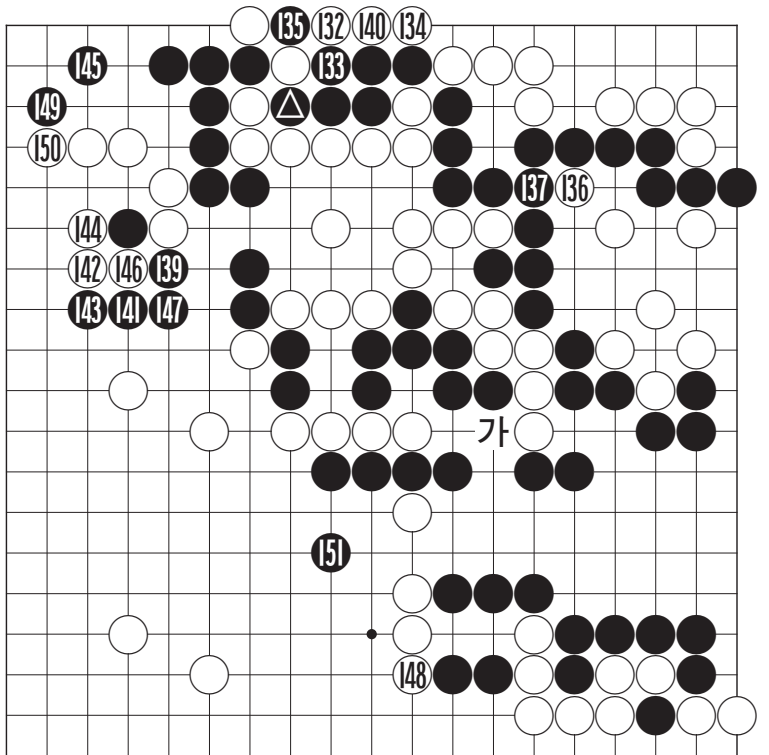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9월 18일(음 8월 8일 乙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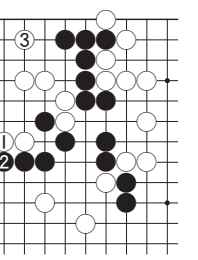
子	36년생 부모 형제와 불평 일이 생긴다. 48년생 새로운 문서가 있으나 신봉치가 없다. 60년생 근친자로 인해서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 72년생 첫째도 조심이요 둘째도 조심을 해야 할 하루다. 84년생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7, 40
丑	37년생 자신의 건강도 살펴봐라. 49년생 부부간의 불평은 사소한 관심에서 온다. 61년생 제사가 즐겁고 할 풀리지만 조심은 하라. 73년생 희망이 다가오니 가서 맛을 준비를 잘해야 한다. 85년생 욕심을 버리면 큰 것을 얻으리라. 행운의 숫자 : 09, 30
寅	38년생 기본 좋은 하루가 되니 안심하고 지내라. 50년생 길한 일이 생기려는 징후가 보인다. 62년생 소란스런 상황에서 벗어 나지만 아찔은 아니다. 74년생 길보다는 흉을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21, 25
卯	39년생 어느 길도 물어서 가야 할 편이다. 51년생 바람이 불어와 도 자신이 빠져서 않으면 되리라. 63년생 자신의 행복은 자신만 이룰 수 있다. 75년생 근거리의 여행을 간다. 행운의 숫자 : 05, 26
辰	40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나리라. 52년생 조금만 인내하 라 시비가 생길라. 64년생 그동안 기다렸던 일이 성사가 될 가능성이 보인다. 76년생 우연한 인연이 좋은 일로 연결이 된다. 행운의 숫자 : 08, 37
巳	41년생 시기가 보이려고 하니 다시한번 주변을 살펴봐라. 53년생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하니 꼭 가야할 곳만 가야한다. 65년생 노는 것을 피하라 허송세월이다. 77년생 말하는 것보다는 남의 말을 들어보라. 행운의 숫자 : 17, 29
午	42년생 新事가 생기지만 주의도 기울여라. 54년생 물건을 잃었다 찾는 기분이다. 66년생 표리가 부당한 친구를 피해야 하리라. 78년생 과욕은 불평하니 과욕을 버리면 편안한 하루로다. 행운의 숫자 : 01, 35
未	43년생 신문서와 구문서가 교체된다. 55년생 개발도 크고 고생은 적다. 67년생 기대했던 중언이 오히려 실망을 가져온다. 79년생 부모 형제의 충고를 들으면 자다가도 땀을 얻는다. 행운의 숫자 : 06, 28
申	44년생 피곤한 하루지만 이득은 있다. 56년생 물에 맞는 계획을 세우면 반은 성공이다. 68년생 세밀한 설계도와 비상대책은 꼭 세워두라 잡자기 다가온다. 80년생 열병은 환승이니 너무 속 태우지 마라. 행운의 숫자 : 14, 38
酉	45년생 좋은 생각이 좋은 인연을 만드니 실성을 꼭꼭 쓰라. 57년생 서두르지 않아도 자연스레 이루어라. 69년생 사기에 휘둘러 는 것은 자신의 사기성도 안 볼라. 81년생 가까운 이웃이 협조자로 등장한다. 행운의 숫자 : 12, 30
戌	46년생 이사변동수가 있으니 준비를 하라. 58년생 밖의 일이 잘 되려면 내사를 잘 다스려야 가능하다. 70년생 자신의 불평은 혼자서 감수하라 식구에게 변질라. 82년생 처음 가는 길이지만 재미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3, 45
亥	47년생 흥한 것이 오히려 복으로 변한다. 59년생 좋은 일끝에 흥한 일을 만날라 조심이 우선이다. 71년생 안과 밖을 동시에 주의 하라 그러면 큰일은 없다. 83년생 좋은 것은 좋을 때 지켜라. 행운의 숫자 : 11, 34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제16회 광일배  
개인전  
3·4위전



<참고도>

숨어 있었다.  
백 132가 패를 만드는 묘수로 134까지 흑백간에 대마의 생사가 걸린 천지대패가 발생했다. 백으로서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줄기 희망의 끈을 찾아낸 것이다.  
천하대패가 발생했으나 흑에게는

기사회생의 묘착 7보(132~151)

白 유희주 5단 (KT전남본부 A)      黑 김영수 5단 (빛고을교사회)

흑 ▲로 끊어온 장면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백 대마가 풍망 잡힌 것처럼 보였는데 백에게도 기사회생의 묘수가  
팻감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백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백에게는 다행히도 136과 '가' 등 두개의 팻감이 있었다.  
상대의 명줄을 끊으려고 강공을 펼치던 김영수 5단은 팻감이 없자 쓴맛을 다신다. 하는 수 없이 139로 손을 돌린다. 유희주 5단은 한숨을 돌리며 백 140으로 시원하게 때려내서는 형제 기억전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  
백 144는 '참고도'의 1로 내리고 3으로 귀를 지켰으면 유리했다. 흑 151로 뛰어 이제부터의 바둑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세돌, 천원전 준결승 진출

이세돌 9단이 최근 SKY바둑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2회 박카스배 천원전 8강 마지막 대국에서 진동규 3단을 140수 끝에 백 불계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이 9단은 '낮은 중국식' 포진을 들고 나온 진 3단에게 시종 리드한 끝에 손쉽게 항서를 받아냈다. 이 9단은 원성진 7단과 결승 티켓을 놓고 격돌한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조한승 9단에 게 막혀 준우승에 머물렀던 이 9단의 고지 탈환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9단은 역대 전적에서 원 7단에 7승3패로 앞서 있다. 우승상금은 2천만원.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p>굿모닝 잉글리쉬 &lt;994&gt;</p> <p>I had my camera stolen 저는 카메라를 도둑맞았습니다</p> <p>A : A thief broke into my room. B : Oh, really? Did he take anything? A : Yes, I had my camera stolen. B : Is that so? Let me report it the police. A : Yes, please.</p> <p>A : 도둑이 제 방을 침입했습니다. B : 오,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훔쳐 갔습니까? A : 네, 저는 카메라를 도둑 맞았습니다. B : 그렇습니까? 제가 경찰에 신고해 드리겠습니다. A : 네, 부탁드립니다.</p> <p>* I had my camera stolen. = My camera was stolen. * 도난 신고를 하고 싶는데요. = I'd like to report a theft * thief(도둑), burglar(강도, 밤도둑), pickpocket(소매치기)</p> <p>&lt;동아 외국어학원 제공&gt; www.donga.tv ☎ 222-6253</p>	<p>오하오우 니혼고 &lt;994&gt;</p> <p>お子(こ)さん おいくつですか。 아기 몇 살입니까?</p> <p>A : お子(こ)さん おいくつですか。 B : 3歳と1歳です。上の子は男の子だから、やんちゃで困りますよ。 A : でも、小さい子供(こども)って仕草(しぐさ)が可愛(かわい)いですよね。 B : それが、幸せを感(かん)じる瞬間(しゅんかん)ですね。それにしても、子育て(こそだて)って大変(たいへん)ですよ。</p> <p>A : 아기 몇 살입니까? B : 3살과 1살입니다. 첫째가 남자아이여서, 응석꾸러기라 죽겠어요. A : 하지만, 어린아이는 행동이 귀엽지요? B : 그것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래도 아기 양육은 힘들어요.</p> <p>子(こ)さん : 아기 上(うえ)の子(こ) : 위에 아이 やんちゃ : 응석을 부림, 떼를 쓴 仕草(しぐさ) : 행위, 처사</p> <p>&lt;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gt; http://kglobal.wo.to ☎ 228-2545</p>	<p>니하오 쑹구위 &lt;184&gt;</p> <p>不用了 관찰야요</p> <p>A : 要不要我帮忙? Yào bu yào wǒ bāng máng? 도와 줄까요? B : 不用了。 Bù yòng le. 부 용 르 A : 别客气, 有事请说。 Bié kè qì, yǒu shì qǐng shuō. 별 걱정,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B : 不用, 不用, 真的不用。 Cù yòng, bú yòng, zhēn de bú yòng. 부 용, 부 용, 쯤 더 부 용 A :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B : 괜찮아요. A : 사랑하지 않아요, 도움 필요 없으면 말씀하세요. B :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p> <p>本係 [Bān xì] ... 할 필요가 없다 毋 [Mú] ... 하지 말라 (경멸론) 真係 [Zhēn xì] ... 정말하다. 약력하다</p> <p>&lt;호남대학교 공자어카데미&gt; ☎ 383-8867~8</p>	<p>한자 이야기 &lt;611&gt;</p> <p>口耳之學(구이지학) 아홉 구, 귀 이, 어조사 지, 배울 학</p> <p>구이지학(口耳之學)은 입과 귀의 학문이라는 말로, 귀로 들은 것을 그대로 남에게 이야기하여 조금도 자기를 이롭게 하지 못하는 깊이 없는 학문을 의미한다. 전통시대의 학문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자신의 내면에 집착시켜 심신(心身) 수양 및 실천(實踐)을 통하여 외부에 드러내었다. 반면에 "구이지학"은 그런 과정을 무시한다. 그래서 순자(荀子)는 구이지학을 "소인(小人)의 학문"이라고 비판하였다. 왜냐하면 "귀로 들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입과 귀 사이는 네 치일 뿐, 어찌 일곱 자 몸을 채우겠는가?"라는 것이다.(荀子·勸學篇) 즉 귀와 입 사이는 겨우 네치인데 구이지학은 그 사이동안만 신체에 머물러 있을 뿐이므로, 신체에 정착시켜 인격을 높이고,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논어'에도 구이지학과 비슷한 말이 있다. "길에서 들은 것을 길에서 말하는 것은(道聽塗說) 덕을 잃는 것이다"(賜貨篇)고 하여 좋은 말을 마음에 간직하여 덕(德)을 쌓는 자양분으로 삼을 것을 권고(勸告)한다.</p> <p>&lt;한여원(韓睿媛)&gt;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p>
---	--	---	---